



울컥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 비가 왜 온단 말인가!” 비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뻘뻘하게 모이게 되었고, 마스크를 벗고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감염자가 속출할 것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증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스텝도 생겼고,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는 캠퍼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슬펐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뻘히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미션 캠프를 마치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을 보며, 편안하고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몸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몸소 배우는 길이란 실로 멀고도 먼 것인가 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럴 때일수록 지혜롭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소리 내어 우는 아이를 보며, 우리가 뭘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할까 싶었지만, 아이들의 마음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사랑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아도, 여름성경학교때 듣고 암송한 말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온 것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오늘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은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학교 환경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현지인이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휙 돌아서는 순간, 내 몸이 갑자기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후문 앞에 있는 길이 진흙길이 되어 어떤 화물차가 오다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차를 도와주려면 학교 안쪽으로 끌어야 한다가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안된다고 말한 것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들었는지 오해하고는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통해 정직과 청결, 질서유지 등의 덕목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불편하였으나 봅니다. 하기는 음식을 먹으며 흘리지 말고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집,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그 짐이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니 많이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속도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학년도는 88 명의 학생(중학교 64 명, 고등학교 24 명. 기숙사생 20 명)들이 열심히 뛰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목 외에 일주일에 한 번의 성경시간과 두 번의 찬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낮의 더위는 아직

35~36 도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어, 이제는 숨을 돌릴 만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더위에는 적응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공항에서 나올 때는 감사하게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변하고 목이 곧은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관절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이철남 조은경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이사말, 유카탄 멕시코에서/지용한 경애 선교사

사진설명

1. 머리를 깎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시골동네 아저씨
2. 마지막 날 성경학교를 마치고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는 시골동네 아이
3. 이사말 시에서 주최한 가을맞이 행사에서 합창하고 있는 벨엘 학생들

기도제목

1.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암투병중인 둘째 처남을 위하여
2. 이철남 조은경 선교사와의 동역, 청년 사역자들(디렉터 노예, 행정담당 싸울)의 영육간의 건강, 교사들과 직원들(15명), 후임 선교사를 위하여
3. 벨엘 아카데미가 복음을 힘있게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벨엘 아카데미가 성령 안에서 하나될 수 있도록, 벨엘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4. 내년 1월 단기선교팀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